

기독교세계관에서 본 공정무역운동

나 회 량(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공정무역운동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경제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다. 공정무역운동은 세계경제와 국제무역 질서 가운데 기독교세계관을 실현해 가기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 대한 윤리적 배려 및 금전적 지원을 통해 국가 간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무역운동은 공정가격, 경제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공정무역운동의 의의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깊은 이론적 탐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공정무역운동은 세계 공정무역운동에 비해 역사도 짧고 질적, 양적인 면에서 일천한 실정이다. 특히 기독교 단체의 공정무역운동의 참여는 선진국에 비해 미미하다. 기독교에 대한 현실문제 참여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때 공정무역운동은 이웃사랑을 위한 현실참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국제적 차원의 이웃사랑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인과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

I. 서 론

2008년 9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경제 및 무역질서의 근간이 되어온 신자유주의의 아성이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경제적 이념체계의 근간이 되어온 신자유주의는 개인 및 기업 등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구를 통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는 개인 간, 계층 간, 국가 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승자독식 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세계무역질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현 GATT/WTO 체제를 기반으로 무역장벽 제거와 자유무역 확대 및 강화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한편에서는 지금의 국제무역질서 하에서는 선진국 등 강자의 논리 및 이익만이 관철되고 개발도상국 등 약자는 무역의 이익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적 무역질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어왔다. 그 한 예가 ‘공정무역운동’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무역질서와 관련하여 공정무역(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¹⁾

한편 우리사회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계층 간 갈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보수, 진보 진영 간의 갈등해소 및 사회적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우리사회가 직면한 현실 문제를 외면한 채 개인구원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다.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도 효과적인 복음사역을 위해 현실참여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정무역운동은 이러한 현실참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윤리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정무역운동은 그동안 세계무역질서 속에서 무역의 이익에서 소외되어 왔던 개발도상국들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하는 윤리적 가치체계를 포함한다. 물론 윤리적 가치는 기독교 외의 종교적, 철학적 논의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현실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무역운동은 기독교세계관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무역운동을 소개하고 동 운동이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공정무역운동의 역사와 현황 등 공정무역운동에 대해 개관하고 또한 한국에서의 공정무역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공정무역운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정리한다. 4장에서는 규범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두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진 공정무역의 의미와 기독교세계관의 경제적 가치와 이를 이루는 데 공정무역운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논의한다. 또한 공정무역운동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하고 공정무역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공정무역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용어는 Michael Barrat Brown에 의해서 1985년 2월에 런던에서 개최된 영국과 많은 제3세계국가들이 참가한 무역 기술회의에서 처음으로 쓰여졌다. Michal Barrat Brown은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공정한 무역을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연설은 이후 전 세계에 걸쳐 대안무역 운동으로 빠르게 수용되었다.

II. 공정무역운동의 개관 및 현황

1. 공정무역운동 개관

공정무역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적 조직체로는 ‘공정무역라벨링기구’(FLO: Fair Trade Labeling Organization International), ‘세계공정무역연합’(WFTO: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유럽세계시장 네트워크’(NEWS: Network of European Worldshops), ‘유럽공정무역연합’(EFTA: European Fair Trade Association) 등이 있다. 2001년 위 네 개 기구(FINE)가²⁾ 합의한 ‘공정무역’의 기본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존중을 바탕으로 거래하고 국제 무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공평을 추구하는 무역 파트너십이다. 공정무역은 특히 남반구의 주변화 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³⁾ 이외 주요 공정무역단체인 옥스팜(Oxfarm), 공정무역재단(Fair Trade Foundation) 등은 ‘공정무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정무역은 기존의 일반적인 무역거래의 대안적 접근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외되고 배제된 생산자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전통적인 국제무역의 규칙과 관행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⁴⁾

이러한 정의를 기초로 공정무역운동은 개발도상국(주로 남반구 국가들)의 가난한 생산자들의 생산품을 선진국(주로 북반구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높고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국제무역질서 가운데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생산자-소비자 관계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적 무역체계를 위한 시민 사회적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정무역운동은 미시적으로는 생산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거시적으로는 생산자들의 자립을 통해 사회발전을 실현하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불평등한 무역관계(소위 남북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공정무역운동의 기저에 GATT/WTO를 기반으로 하는 현 세계무역질서가 충분히 공정하다고는

2) 위 기구들은 1998년부터 단체의 이니셜을 딴 이름인 FINE으로 활동하고 있다. FINE의 목표는 이러한 네트워크와 멤버들이 공정무역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공동으로 세우고 협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정무역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공정무역 지지와 캠페인 활동을 펼치며, 그들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다. WFTO는 기존의 국제공정무역연합(IFTA, International Fair Trade Association)으로 2008년 10월부터 명칭을 바꾸었다.

3) Fair Trade is a trading partnership, based on dialogue, transparency and respect, that seeks greater equity in international trade. I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by offering better trading conditions to, and securing the rights of, marginalized producers and workers, especially in the South (FINE).

4) Fair Trade is an alternative approach to conventional international trade. It is a trading partnership which aims at sustainable development for excluded and disadvantaged producers. It seeks to do this by providing better trading conditions, by awareness raising and by campaigning (Oxfarm and Fair Trade Foundation).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이케가미 코우이치, 2007). 기존의 세계무역체제는 남북문제를 확대, 고착화시켜 왔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변혁이 없이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및 노동자들의 자립이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무역운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대안적 무역을 지향하는 공정무역은 국제적 맥락에서 GATT/ WTO 무역체제를 대신할 새롭고 대안적인 무역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운동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무역운동은 반 지구화 운동(anti-globalization movement) 또는 대안 지구화 운동(alter-globalization movement)과의 일정한 경향성을 공유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⁵⁾ 또한 이는 공식적 국제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전통적 원조와 개발 방식에 대한 회의 및 의구심에서 비롯된 측면도 존재한다.

최근 공정무역운동의 추이를 보면 공정무역의 특징으로 생산자-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장기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산 활동’을 추가하고 있다(박창순, 2008). 이는 최근 환경문제 및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위의 공정무역기구들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환경운동이나 생활협동조합운동 등과 연계된 공정무역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 공정무역운동 단체들은 공정무역은 단순한 상품거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며, 공정무역이 세계무역의 개혁을 위한 역할과 공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정무역이 기존의 무역관행과 규칙에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성공적인 사업이 어떻게 사람을 우선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다(WFTO, 2009).

현대적 의미의 공정무역운동 모델은 주로 1970년대 영국의 옥스팜을 위시한 유럽의 구호기구들(European aid organizations)과 이와 관련된 단체들에 의해 형성되었다(Ransome, 2001; Goodman, 2001). 하지만 공정무역의 초기 역사는 이보다 훨씬 빠른 1946년 미국의 텐사우전드 빌리지(Ten Thousand Villages)에서 푸에르토리코에서 생산한 바느질 제품을 구입하면서 시작되었다.⁶⁾ 유럽에서는 1950년대 후반 영국 옥스팜이 홍콩에 사는 중국 난민들의 수공예품을 팔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김정희, 2006; 한국공정무역연합, 2008).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대 영국의 옥스팜과 네델란드의 Organisatie 등이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공정무역 조직과 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후 공정무역운동은 1960년대와 7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해왔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공정한 거래조직(fair marketing organizations)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 공정무역의

5) 2004 세계사회포럼 TATA; 정규식, 2008; 세계사회포럼 홈페이지 <http://www.worldsocialforum.org>.

6) 60 years of Fair Trade 중. 출처: <http://www.wfto.com>.

고리(trade link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광범위한 공정무역 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확대, 강화되어 왔다.

2. 공정무역운동 현황

유럽 내 28개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새롭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공정무역 판매액은 26억5천만 유로(약 30억 달러)에 달한다(Krier, 2008). 또한 국제공정무역연합이 제공하는 품목별 성장세는 2006년 전년 거래량 대비 코코아 93%, 커피 53%, 차 41%, 바나나 31%가 증가하였다(IFAT, 2006). 또한 공정무역연대(FTF, Fair Trade Federation)는 공정무역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소규모 생산자 및 노동자의 수를 약 800,000만 가구, 5백만 명으로 추정하였다(FTF, 2008). 참여 단체를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약 450개의 전문화된 공정무역운동 단체 및 기구들이 개발도상국 생산자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공예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약 125,000개의 슈퍼마켓과 4,000개의 월드샵(worldshop)이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무역 운동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십만 명 이상의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Krier, 2008). 물론 공정무역으로 거래되는 식품과 음료는 이 산업부문의 세계 총 거래량의 0.01% 밖에 안 되지만 매년 50% 이상의 급속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Murray and Raynolds, 2007).

또한 현재 공정무역운동을 위한 생산자, 소매상인, 공정무역단체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네트워크의 주요 목적은 현존하는 세계 무역 시스템의 불공정함으로 만들어진 빈곤의 퇴치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정무역단체들은 시장논리 하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이 적정한 가격수준 하에서 상품을 수출하고 이를 통해 삶의 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유지하도록 돕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은 생산자들에게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의 설립으로 전개되어졌다. 예를 들어, 생활협동조합(생협)을 통해 생산자들은 그들의 생산물을 스스로 통제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생산자들은 그들의 기술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개인이 아닌 단체로 행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더 유리한 협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한국공정무역연합, 2008).

3. 한국의 공정무역운동 현황⁷⁾

위에서 보았듯이 공정무역운동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공정무역운동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장철호, 김소라, 2008). 국내에서는 2003년 ‘아름다운 가게’에서 네팔과 인도의 수공예품을 팔면서 ‘대안무역’이란 이름으로 공정무역을 알린 것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김소라, 2008). 하지만 이 사업은 정착되지 못했고(김정희, 2006), 이후 아름다운 가게는 ‘아름다운 커피’라는 전문 사업체를 만들고 네팔 산 공정무역 커피를 수입해서 기존의 커피전문점, 백화점, 온라인 상점에 보급하거나 자체 판매망(온라인 쇼핑몰 <http://www.beautifulcoffee.org>과 ‘아름다운 커피’ 직영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정무역 상품 판매는 2004년 두레생활협동조합(두레생활)이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마스코바도 설탕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YMCA는 동티모르에서 수입한 커피를 ‘평화 커피(peace coffee)’라는 상품명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규모의 생활협동조합인 iCOOP 생활협 역시 2008년 11월 이후 필리핀의 파나이 섬으로부터 마스코바도 설탕을 수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한편 여성환경연대는 2006년부터 네팔로부터 수공예품, 옷감, 옷, 여성용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식품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이 직접 제조하는 직조물과 수공예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단체들과의 차별성이 엿보인다. 이처럼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는 공정무역 상품은 커피, 설탕, 올리브유, 수공예품 등 기후적, 지역적 특성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이 어려워 국제 무역이 불가피한 품목에 국한되고 있다.

최근 대중매체들의 공정무역 관련 기사와 보도가 늘어나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한 예를 들면 2009년 1월 서부 아프리카의 최대 카카오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장 아동들의 실태를 보도한 기사를 시점으로 공정무역을 통해 구입된 ‘착한 초콜릿’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 바 ‘착한 초콜릿’ 열풍으로 확대된 바 있다.⁸⁾ 또 다른 예는 네팔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아름다운 커피’와 관련된 기사인데 이 기사에 따르면, 네팔 굴미(GULMI) 지역의 커피협동조합이 그 동안의 아름다운 가게와의 커피거래를 통해 얻게 된 수익금과 지원을 통해 학교시설을 새롭게 만들어 지역 내 3천여 농가의 아이들에게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기사는 공정무역이 지향하는 사회적 장려금(social premium)이 지역사회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지역사회 발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공정무역

7) 한국공정무역연합(2008)의 자료 참조.

8) 한겨레 21(2009년 1월 30일 제 745호). “초콜릿은 천국의 맛이겠죠.”

9) 연합뉴스 (2009년 4월 3일). “아름다운 커피 한잔의 기적, 교육지원 사업 네팔 언론 1면 보도”

단체 뿐 아니라 공정무역 상품의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책임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최근 들어 공정무역운동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공정무역 운동은 여전히 규모면이나 활성화 단계에 있어서 초보적 수준이며, 소위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물품의 수입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윤창출을 위한 방안과 연구가 필요하다. 남반구의 빈곤 경감과 남북무역의 형평성 회복이라는 공정무역의 궁극적 목적은 남반구의 생산품이 북반구의 시장체계 안에서 수입-유통-소비의 일련의 경제적 행위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체계 안에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상의 이윤창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공정무역 운동과 시장형성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여기서 이윤의 수준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생산물을 무리 없이 재생산 할 수 있을 만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선진국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정무역 단체나 조직, 혹은 상점의 이익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열쇠는 공정무역상품의 구입 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정무역의 성공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choice)에 달려있다(이케가미 코우이치, 2007). 그러므로 공정무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뿐 아니라 공정무역상품의 소비 활성화와 소비층 확대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공정무역 조직을 만들어 공정무역 상품을 수입, 판매, 보급하는 단체는 두레생협, 한국 YMCA, 아름다운 가게, iCOOP생협, 페어트레이드코리아, 한국공정무역연합 등이 있다.¹⁰⁾

10) 구체적으로 각 단체들의 활동사항들을 보면 (1)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 2003년 9월 아시아지역의 소규모 생산자들의 수공업품을 수입하였으나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공업품 시장을 만들지 못했다. 한동안의 침체기를 거쳐 새로운 제품 수입을 모색하던 중 일본의 네팔리 바자로의 협력으로 2006년 9월 네팔 커피생두를 들여와 ‘히말라야의 선물’이라는 브랜드로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단일 품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 1월 영국의 트윈 트레이딩의 협력으로 페루에서 생두를 들여와 ‘안데스의 선물’과 ‘마운팅 블렌드’를 출시했다. 또한, 네팔 산 홍차 티백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초콜릿 출시도 앞두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의 커피가 국제적인 기준인 FLO인증 마크 없이도 공정무역 커피로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상은 아름다운 가게의 대외적 이미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두레생활협동조합 수도권 연합회(두레생협)에서는 에이피넷(APnet)이라는 무역회사를 만들어 일본의 대안무역 회사 ATJ의 협력으로 2004년 필리핀 마스코바도 설탕, 2006년 6월 팔레스타인 올리브유를 수입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3) YMCA 전국연합은 동티모르 구스마오 대통령의 사회개발 참여 요청을 받아 동티모르에 직원을 파견하여 커피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5년 11월 동티모르 산 생두를 볶아 ‘한 잔의 커피, 한 잔의 평화’라는 브랜드의 커피를 회원 중심으로 판매를 하다가 2006년 12월 ‘Peace Coffee’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내놓고 커피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의 후원으로 카페티모르 매장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 커피 역시 FLO인증 없는 공정무역 커피로 알려져 있다. (4)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여성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한국의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도록 2006년 11월 희망무역이란 이름으로 일본 공정무역회사 네팔리 바자로를 통해 의류, 생활용품, 향신료 등을 수입 판매하였다. 또한 2007년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를 설립하였다. 네팔의 생산품과 함께 인도 아시시가멘트로부

III. 공정무역운동 관련 기존 연구

공정무역의 이러한 발전과 함께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농촌연구, 지역개발, 소비자 연구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공정무역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공정무역 연구들은 유럽과 미국의 공정무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커피, 바나나, 오렌지 등의 공정무역 물품을 주된 연구 소재로 삼았다(김정희, 2008).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공정무역 농산물을 둘러싼 논쟁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무역 담론이 역사적 진공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덕경제와 정치생태학 논의를 조화시키자는 주장, 공정무역이란 용어를 남-북반구 네트워크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북반구 내 소규모 생산자들과 도시 소비자들 간의 네트워크까지 확장해서 사용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Murray and Raynods, 2007; Trentmann, 2007; Goodman, 2004). 또한 공정무역 농산물에 대한 FLO 중심의 공정무역 인증 시스템이 소규모 생산자들은 기준을 맞추기 힘든 인증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나 공정무역은 변형적 신자유주의적 시장일 뿐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하다 (Levi and Linton, 2003, Jaffee *et al*, 2004; Moore, 2004, Fridell, 2006).

국내에서 학술적 연구의 대상으로 공정무역을 연구한 사례는 김정희(2006)가 대표적인데 이 연구에서는 공정무역에서 아시아와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미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정무역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남성중심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공정무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정희(2008, 2009)는 두 개의 공정무역

터 유기농 면직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만든 티셔츠를 ‘그루’라는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2008년 패션쇼를 개최하여 의류사업을 특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초콜릿을 판매하는 등 점차 품목을 늘려가고 있다. (5) 2001년 발족한 iCOOP 한국생협연합회는 전국 각지 생협의 연합단체로 주로 유기농산물 및 안전한 먹거리 등의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필리핀 파나이섬의 FLO인증 생산자 단체로부터 마스코바도 설탕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6) 한국공정무역 연합은 2006년 ‘아름다운 거래’라는 공정무역 다큐멘터리 2부작을 제작하여 광주방송과 서울 문화방송을 통해 방영하여 일반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2007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한국공정무역 연합’ 카페를 개설하여 공정무역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고 있다. 2007년 5월과 6월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공정무역연합 총회에 참석하고 영국 공정무역재단, 디바인 초콜릿, 카페 다이렉트 방문, 가나 쿠아파 코쿠(Kuapa Kokoo) 카카오 생산지를 답사하고 국제 연대활동을 강화하였다. 같은 해 10월 비영리미간단체로 서울시에 등록하였다. 2008년 1월 영국 런던 스퀘어 마일의 공정무역 무역 마을을 조사하고 2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1회 유럽 공정무역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같은 달 아시아공정무역포럼(Asia Fair Trade Forum)에 가입하였고 10월에 IFAT ASIA 스리랑카 총회에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 생산자들과 교류하고 한국공정무역연합 활동상과 한국의 공정무역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편, 2007년 9월 공정무역 가게 올림을 통해 파키스탄 비전테크놀로지로부터 FLO인증 추구공을 선보였으며, 2008년 2월 스위스 클라로부터 FLO인증 초콜릿을 수입하여 ‘착한 초콜릿’ 캠페인을 벌였다. 그 뒤, 프랑스 로보디스의 FLO인증 커피와 영국 트레이드 크라프트의 지오바와 무슬리 등을 판매하면서 공정무역 인증 제품을 다양화하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공정무역연합, 2008).

관련 연구에서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마스코바도 설탕 산지와 한국 두레생협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일본의 ‘네팔리 바자로’라는 공정무역기관과 네팔의 공정무역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다루었다. 김소라(2008)가 공정무역과 관련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작년 iCOOP생활협동조합 연구소가 주관한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논문 공모전에서 두 개의 공정무역 관련 논문(장철호·김소라, 2008; 정규식, 2008)이 제출되었다.

경제학 및 무역학 부문에서의 공정무역에 관한 연구를 보면 크게 자유경쟁시장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 제도적 측면을 다룬 규범적 연구와 빈부의 격차, 기회의 형평성 등을 다룬 윤리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범적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이균(1991, 1998)은 주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논쟁의 산물로서의 공정무역을 논하고 상호간 최혜국 대우를 강조하는 공정무역을 논하고 있다. 고용부(1998)는 주로 WTO/GATT를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질서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무역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복연(2003)은 WTO체제 자체가 자유무역론에 입각한 선진국 중심 체제임을 지적하고 DDA(Doha Development Agend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불공정한 규범들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강용찬(2005)은 처음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규범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편 윤리적 차원의 연구로는 먼저 예진수(2005)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빈곤국의 생산자들을 위한 자선적 행위로서의 구매행위 또는 판매기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국제 공정무역운동단체인 옥스팜의 간행물들에서 더욱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 이우채(1999)는 공정무역운동이 사회마케팅 기법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남북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공정무역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공정무역에 대한 연구들은 자유경쟁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규범적 공정무역에 대한 논의이거나 또는 빈곤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목적을 둔 사회운동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Suranovic(1997, 2001)은 무역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다. Stiglitz(2005)는 주로 후자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단순한 자선적 구매 또는 동원적 주장이 아닌, WTO를 중심으로 한 규범의 개선을 주장하는 등 두 가지 입장을 모두 포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옥스팜(2002)도 윤리적 입장에서 빈곤국의 공평한 무역기회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IV. 공정무역운동과 기독교세계관

1. 규범적 공정무역운동과 윤리적 공정무역운동

위에서 살펴본 공정무역운동은 현재의 국제무역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주류로 존재하는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공정무역운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정무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규범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고 있다. 먼저 두 가지 측면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또한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규범적 공정무역운동은 주로 자국 이익을 위한 인위적 보호무역조치 등 무역 상대국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국제적 움직임을 의미한다. 당국에 0년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질서는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 질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빈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경쟁한 정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대안적 경제이념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또한 새로운 국제무역이념 또는 질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무역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이나 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일반적인 논의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 간 완전한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 이익의 극대화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 국내시장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려는 현실적 상황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우려되는 것은 한시적으로 또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이러한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제도화되어 항구적 또는 임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규범적 공정무역은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이 공정무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자유무역이 인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침해될 때 공정무역은 손상되고 경제적 왜곡 및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¹¹⁾ 결국 공정하지 못한 무역, 불공정무역은 국가 간 자유무역이 침해될 때 발생하고 이러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시정하고 제거해 가는 것이 공정무역운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서의 공정무역운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그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를 통해 자유무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제반 정치, 경제, 사회적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보호무역정책, 즉 불공정무역행위가 주로 유치산업 보호를 시행해 온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물

11) 그 예로는 GATT/WTO와 같은 국제무역 규범에서 허용되지 않는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한다거나, 어떤 기업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조작하여 덤핑으로 수출하든지 기업에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원산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카르텔 등으로 가격을 담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론 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선진국들에서도 광범위하고 강도 높게 시행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선진국들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는 정치, 군사적 헤게모니에 의해 강제되어지고 개발도상국들에 끼쳐지는 피해 역시 상대적으로 크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을 비판하고 이의 해소와 철폐를 주장해 왔다. 현재의 WTO체제 하에서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은 DDA협상을 통해 구체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규범적 공정무역운동은 보호무역의 유혹을 차단하려는 거시적 또는 정부적 차원의 해소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규범적 공정무역운동이 주로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한다면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논의에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은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 즉 자유무역의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개발도상국-선진국 간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은 지금의 WTO질서 하의 국제무역 규범 및 제도만제도만제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 시민의 정책적 합의와 시장개입 및 참여를 통한 해결을 제시한다. 선진국들의 이해를 옹호하는 국제무역질서 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즉 선진국의 소비자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간의 교역은 이미 불공정하며 이의 시정을 위해 선진국 소비자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시장참여와 시장실패의 시정을 위한 노력이는 국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는이해화된 예로서는 중간 유통단계의 불국한 비용을 배제하고 선진국 소비자들과 개발도상국 생산자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들에게 적장하는 것, 시장상황에 의해 좌우되어 불안정 한계품의 시장가격 대신에 일정 한가격수준을 지지하의젠는 최저가격을 도입하는 것, 생산자들에게 미소금융(micro-credit) 등 금융지원을 해젠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주체도만제도제기구, 정부, 정부, 민간의 시민단체, NGO 등 다양할 수 있다.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은 규범적 공정무역운동주는 달리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사업이 전개 것,있덴상국또 한규범적 공정무역운동이 주로 정부, 도제기구정부,시적 차원에서로 한지고 있다면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은 원에시민단체, NGO 등 민간설패자심으로 전개 것,있다.

이처럼 공정무역운동은 규범적이냐 윤리적이냐에 따라 매우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규범적 공정무역은 거시적,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 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거, 완화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의 시정을 위해 각 국 정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의 협상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거래, 판매가격 지지, 장기거래 계약 등을 통한 특정 지역의 생산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빈부격차 문제 및 자본주의 확대와 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미시적 보완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공정무역운동을 기독교세계관의 시각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기독교세계관이 추구하는 목적은 생명(삶)의 보전, 무역 및 경제체제 내 정의의 실현, 경제적 자유의 보장,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의 달성 등이다. 또한 빈곤문제와 관련해서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의 특징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발적이고 분권화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범적 공정무역운동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접근을 차단하는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 상환 불가능한 외채에 대한 탕감, 선진국들의 자국 상품의 덤핑을 통한 시장장악에 대한 저항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은 선진국의 불공정무역거래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규범적 공정무역운동과 그 목적을 상당 수준 공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빈곤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양 공정무역운동 모두 세계무역질서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양 공정무역운동은 배타적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로서 서로의 역할이 다른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규범적 공정무역운동의 예로서 개발도상국들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접근을 차단하는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 상환 불가능한 외채에 대한 탕감, 선진국들의 자국 상품의 덤핑을 통한 시장 장악에 대한 저항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과 목적은 윤리적 공정무역운동과 별개로 다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규범적, 윤리적 두 가지 차원의 공정무역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더 큰 시너지와 상승작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세계무역 및 경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현실화되는 데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규범적 공정무역운동은 그 이념적 측면에서 윤리성과 형평성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공정무역운동에 대한 논의는 주로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에 한정되어진다.

2. 공정무역운동과 기독교세계관의 경제적 가치기준

그리스도인은 사회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인격적, 윤리적 차원의 접근을 도외시 한 채 물질적 문제로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와 이의 확대재생산 과정인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빈부격차 및 남북문제에 대한 보다 치열한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IMF와 WTO를 양대 축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체제는 빈국의 이익보다는 서구 선진국들의 이익을, 개별 국가의 국민 및 국가적 이익보다는 몰 인간적인 자본과 그리고 자본의 또 다른 양태인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해서도 개발도상국들의 상품들이 선진국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제외되고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공정무역운동은 이러한 세계경제 및 무역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대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의 측면에서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의 의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질서 및 체제에 보편적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열망의 표현이라는 점과 둘째, 세계적 빈부격차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윤리적 이상과 실천은 비단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 및 이념체계 내에서도 공유하고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공정무역운동의 이상과 실천이 기독교세계관에만 국한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공정무역운동이 영국, 미국 등 기독교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국가에서 시작되고 또 주도되고 있고 다수의 공정무역운동 기구와 단체들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공정무역운동의 의미와 역할을 기독교세계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우선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무역에 있어서 네 가지 정도의 윤리적 쟁점을 기존의 논의들(Booth, 2004, 2008; Booth and Whetstone, 2007; Tucker, 2007)을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공급의 원리 첫째해 가격이 물질적으로 결정되는 시장기구 첫째존하는 경우 판매가격이 지속적 생산이 가능한 가격 이하에서 결정될 수 있는 위험하에서존재한다.¹²⁾ 둘째, 최종소비자는 생산자 및 노동자의 노동

12) 공정무역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품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폭이 일반 공산품에 비해 크다는 점도 이러한 요인에 추가될 수 있다.

조건과는 무관하게 가격 및 품질 등의 정보에만 쫓겨 소비자활동을 하게 되는 이럴 경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동노동과 같은 노동력 착취, 열악한 노동조건
의 미개선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들이 생산-소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
되게 된다. 셋째, 생산자의 노동권은 해당국가의 법률체계 첫째로 정당하게 보호
받아야 하며, 해외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 및 투자를 위한 중요한 원동력
역할을 하게 됨 첫째로 다국적 또는 초국가적 기업의 이해 첫째로 노동권이 침해
받을 수 있는 개연하에서 존재한다. 넷째, 상품-서비스-생산자 간의 장기적 관
계보다는 단기적 이익의 확보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시안적인 단기계약에 치중
할 수 있다. 공정무역운동은 시장원리 만 맡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선진
국-개발도상국 간 무역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독교
적 관서존재한시작 들일련의 시민운동의 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되는 기독교세계관의 경제적 가치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Tucker, 2007).

첫째, ‘생명(삶) 보전’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 생명(삶)을 부
여받았으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 가
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주체로서 부르심으로 받았다. 여기에는 우리
가 속해 있는 사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삶)을 보존하고 회복하
는 사역도 포함된다.¹³⁾ 결국 생명(삶)에 대한 경외와 보전 그리고 훼손된 생명(삶)의
회복은 기독교세계관의 가장 기본적 원칙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생명(삶)의 본
질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과 연관된다. 국가 간 무역도
상호간 무역의 이익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생명(삶) 보전을 위
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생명(삶) 보전의 원칙은 비단 인간에게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 즉, 자연생태계의 보전에도 포괄적으
로 적용할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한 착취의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토록 보존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을 이용한 생산 활동이 일회
적이 아닌 지속가능해야 함을 주장하는 공정무역운동은 기독교세계관의 경제적 가
치인 생명(삶) 보전의 원칙에 부합된다. 공정무역운동을 통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무역에 있어 빈곤해소, 약자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및 노
동자들의 사회적 자본증대를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세계무역질서의 개혁

13)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
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rule over) 하시니라(창세기
1:28).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work) 지키게(take care
of) 하시고(창세기 2:15).

요구, 각 하부 공정무역운동 단체들에 대한 지원 등은 생명(삶)의 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도 기독교세계관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의(공정성)’의 실현이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핵심원칙으로 공정성(fairness)도 정의로움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¹⁴⁾ 이렇게 볼 때 “경제 및 무역 질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움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기독교세계관의 경제적 가치와 연결된다. 경제활동 과정을 생산-교역-소비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에 참여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및 노동자들이 생산활동에 공헌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 합리적인 보상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소비 측면에서 구매자들은 상품매매 시 상품 생산자들이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매자들의 집단적 합의가 요구된다. 교역 측면에서는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경제력 및 빈부격차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생산자 간 직접구매 확대와 같은 미시적 차원의 노력들이 요구된다. 또한 이외에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이 세계시장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부패 문제의 해결 등을 통한 경제활동의 절차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리를 해소해 가는 것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무역운동은 실제적 활동을 통해 이러한 생산-교역-소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기독교세계관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개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경제활동의 자유이다. 경제적 자유의 가치는 개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가 경제적 빈곤과 억압적 사회체제 등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체제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그 존재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¹⁵⁾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깊은 관심과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14)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with fairness)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잠언 29:14). 상전들이 의(what is right)와 공평(what is fair)을 중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골로새서 4:1).

15)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시편 146:7).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회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레위기 25:11).

약속하고 계시며 가진 자들이 이들을 보살필 것을 요구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심은 비단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전인격적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곧 물질적 속박으로부터의 경제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정무역운동은 부의 분배에서 소외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및 노동자들이 구조적인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생적으로 정상적인 부의 분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는 공정무역운동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이며 기독교세계관의 경제적 가치인 경제적 자유가 실현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하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이웃사랑을 들 수 있다. ‘사랑’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경제학적 논의와 연계시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웃사랑은 기독교세계관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강령이다.¹⁶⁾ 그렇다면 이웃사랑의 성경적 요구를 어떻게 현실의 경제적 문제와 접목시킬 수 있는가.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공정무역운동은 이러한 이웃사랑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¹⁷⁾

이렇게 볼 때 공정무역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기독교세계관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경제 및 무역체제의 부조리로 인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공정무역운동의 활동지침

16)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마가복음 12:31)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야고보서 2:16).

17)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저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쾌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생략...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34-40).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마가복음 12:31).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야고보서 2:16).

이러한 기독교세계관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볼 때 공정무역운동이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기본적 활동지침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Booth, 2004, 2008; Booth and Whetstone, 2007; Tucker, 2007). 첫째, 공정무역운동은 가능한 생산자와의 직접적 계약을 통해 거래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는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 정보격차로 인해 시장으로의 용이한 접근이 제한되고 정상적 시장가격 하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공정무역운동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성사시킨다거나 미비한 제도, 법령 등의 제정을 요구하고 그 적용을 통해 생산자가 가급적 제한 없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공정무역운동은 투명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장려하는데 이를 통해 생산자는 장기적 거래계약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수입이 보장되고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공정무역운동은 생산자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적가격은 시장가격의 결정과는 달리 생산비와 생활비 그리고 공정무역거래 수행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비용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최저가격은 흡사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및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가격은 사회적 장려금(사회적 프리미엄, social premium)이라고도 불려진다. 예를 들어 관행적인 국제시장과는 대조적으로 공정무역라벨링기구(FLO)에서는 농부들이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산비와 생계비를 고려한 기준가를 정해 소위 ‘사회적 장려금’의 형태로 지불한다. 사회적 장려금은 거래되는 생산물의 구입 가격에 더하여 생산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다(Litvinoff and Madeley, 2007; 한국공정무역연합, 2008).¹⁸⁾ 이 사회적 장려금은 얼마만큼의 기금이 필요한지 생산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데, 이는 세계공정무역연합(IFTA)이 제시하는 공정무역 기준 중 하나로, 등록된 생산자들은 FLO에 기금의 사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금은 생산자들이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단일 제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몇몇 개발 프로젝트에 쓰이기도 하고, 보건, 교육, 사회복지 시설 마련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사회적 장려금은 생산자의 실질적 소득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최저가격 설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비효율성 및 문제점 등의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무역운동은 생산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노력한다.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18) Litvinoff and Madeley(2007)의 번역서인 『공정무역: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에서는 social premium을 사회적 장려금이 아닌 사회적 초과이익으로 번역하고 있다.

부채 및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생산자들에게 공정무역운동은 자금 대출을 통해 생산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활동지침들을 통해 공정무역운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세계관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에 포함될 수 있다.

4. 공정무역운동에 대한 비판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기존의 공정무역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유경쟁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규범적 공정무역이론이었던 반면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에서는 빈곤문제 해결 및 불합리한 국제무역질서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 운동의 하나로 다분히 윤리적인 가치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에 많이 논의되어 왔던 규범적 공정무역과 윤리적 공정무역의 개념을 동시에 조화롭게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적 타당성에 불구하고 공정무역운동은 (심지어 공정무역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우려 및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ooth, 2004, 2008; Booth and Whetstone, 2007; Tucker, 2007). 첫째, 공정무역운동이 요구하는 가격이 과연 생산자들에게 정당하게 지불되는 유일한 가격인가 하는 점이다. 더 나아가 공정무역 비판자들은 과연 공정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다른 어떤 대안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증거를 요구한다. 또한 공정가격은 일반적인 시장가격에 생산자를 위한 자선적 성격의 기부금을 더한 가격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분명히 시장 기구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과연 이러한 가격이 생산자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유일하고 효율적인 가격인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소위 공정가격은 가격에 대한 보상이지 판매량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공정가격에서의 판매량이 시장가격의 판매량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하지 않다. 또한 시장가격보다 높은 공정가격이 보장될 경우 그 자체로서 초과공급을 초래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공급증가는 큰 폭의 가격하락을 초

래하고 이는 공정무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동종 상품의 생산자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손익분석의 면에서 과연 공정가격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손실)보다 과연 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비용 측면을 살펴보면 공정무역을 통한 거래가 증가할 경우 특정 국가 및 지역의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는 그 만큼 감소하게 되고 그 지역의 생산자들에게는 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고 공정무역 모델이 모든 생산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공정무역의 실행을 위해서 중간 도매상 등이 높은 진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참여를 위한 실제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노동 금지, 생활협동조합 등에의 의무적 참여 등 공정무역에 참여가격 하락 조건들이 생산 당사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소규모 가족노동을 통한 생산자들의 경우 아동노동 및 생활협동조합에의 참여 등의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생산자들의 이익 증진에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잣대를 모든 경우에 경직적으로 적용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넷째, 공정무역운동이 생산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가라는 점이다. 공정무역운동이 추구하는 공정가격을 통한 생산자의 지속적 삶의 보장이라는 목표는 공정무역운동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일정정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공정무역운동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통해서도 미래의 확정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거래 기업과의 가격보장 등을 포함한 장기거래계약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정무역운동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공정무역운동이 보다 선명한 대안무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운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이러한 대체 방법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공정무역운동이 과연 장기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다. 중국, 인도 등 시장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보면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정무역운동과 같은 미시적인 대안무역보다는 자유로운 무역과 시장 개방에 필요한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자유무역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정책적, 거시적 차

원이 노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공정무역운동이 이러한 반론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무역운동으로서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정무역운동은 실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활동과 기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공정무역운동이 현실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보다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V. 결 론

일반적으로 공정무역운동은 국제무역질서 가운데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일련의 시민사회운동을 의미한다. 공정무역의 개념은 크게 규범적 차원 및 윤리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범적 공정무역운동이 현 국제무역질서를 지지하면서 국가간 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큰 선진의 개념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데 반해,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저항 내지는 대안적 방안으로서의 성격을 짊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격차규범적 공정무역운동과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은 그 이념적 토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다시 말해 규범적 공정무역운동은 거시적 측면에서 국제무역질서라는 시스템을 개혁해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은 제도적, 거시적 차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미시적 차원의 선진국-개발도상국의 소비자-생산자 간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이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규범적 공정무역운동과 윤리적 공정무역운동은 서로 배타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보다 바람직한 국제무역질서의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국제무역질서에 비판적인 공정무역운동 단체들의 전향적인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공정무역운동의 협력과 공조는 기독교세계관을 세계경제 및 국제무역 질서에 적용하고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추동력을 더욱 크게 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공정무역운동 그 자체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의

성격이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민단체들이 주로 공정무역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YMCA와 같은 기독교 단체도 공정무역운동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정무역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다른 종교단체나 비기독교 시민단체도 공정무역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공정무역운동 자체가 기독교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독교 관련 단체나 기구가 공정무역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 단체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¹⁹⁾

많은 경우가 그렇듯이 공정무역운동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한국의 기독교가 받고 있는 현실문제 외면이라는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 참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전략의 하나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정무역운동의 규모와 시민사회의 참여도를 볼 때 한국의 공정무역운동은 아직 초보적이고 일천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공정무역운동은 한국 기독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며 이렇게 될 때 한국의 공정무역운동은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는 교회, 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무역운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보다 많은 교회의 지원과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내희. 2007. “동아시아의 지역적 시야와 평화의 조건.” 『문화과학』 . 52.
- 고용부. 1998. “WTO체제하의 공정무역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 12(2). 한국전통상학회.
- 김소라. 2008. “공정무역상품의 윤리성 환경성 프리미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 2006. “필리핀 네그로스 지역의 공정무역과 여성.” 『여성학논집』 . 23(2).
- _____. 2008. “여성중심 공정무역에 대한 연구: ‘네팔리 바자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 24(2).
- 김정희 편. 2009. 『공정무역. 희망무역: 아시아의 여성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 서울:

19) 영국의 경우에만 2006년 기준 약 2,800여개의 교회가 공정무역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Litvinoff and Madeley, 2007).

- 동연(와이미디어).
- 박창순. 2008. “공정무역의 이해와 국제공정무역의 현황.” 한국공정무역 워크숍 발표 자료(<http://www.fairtradekorea.net/resources.php>)
- 예진수. 200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대안의 기업-공정무역운동: 기업과 세계화에 맞서는 대안의 민중교역.” 『환경과 생명』. 46.
- 이균. 1998. “WTO/GATT 자유무역주의와 공정무역주의.” 『경영연구』. 홍익대 경영연구소.
- 이동연. 2007. “동아시아 담론형성의 갈래들-비판적 검토.” 『문화과학』. 52.
- 이우채. 1999. “국제공정무역과 사회마케팅: 공생관계로의 지향.” 『통상정보연구』 1(1). 한국통상정보학회.
- 이케가미 코우이치. 2007. “공정무역의 딜레마와 그 극복: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공정무역의 내부조직화.” 한국공정무역연합.
- 장철호, 김소라. 2008.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공정무역상품의 소비활성화 방안 연구.” 제1회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논문공모 수상집.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 한국공정무역연합. 2008. “공정무역의 이해와 국제공정무역의 현황.” 한국공정무역 워크숍 자료집. 한국공정무역연합.
- 한복연. 2003.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WTO 무역체제의 양면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35.
- Booth, P. 2004. "Is Trade Justice Just? Is Fair Trade Fair?". IEA Discussion Paper No. 10.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 _____. 2008. "The Economics of Fair Trade: A Christian Perspective". 28th IEA Current Discussion Paper.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 Booth, P. and Whetstone, L. 2007. "Half a Cheer for Fair Trade". 26th IEA Current Discussion Paper.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 FTF. 2008. Facts and Figures. (<http://www.fairtradefederation.org/ht/d/sp/i/197/pid/197>)
- Fridell, G. 2006. "Fair Trade and Neoliberalism: Assessing Emerging Perspective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33(6).
- Goodman. 2004. "Reading Fair Trade: Political Ecological Imaginary and the Moral Economy of Fair Trade Foods." *Political Geography*. 23.
- IFAT. 2006. IEAT Annual Report(http://www.ifat.org/index.php?option=com_docman&task=cat_view&gid=36&Itemid=106).
- Jaffee, D., Kloppenburg, J. R., Monry. M. B. 2004. "Bringing the "Moral charge" Home: Fair Trade within the North and within the South." *Rural Sociology* 69(2).
- Krier, J. M. 2008. Fair Trade 2007: New Facts and Figures from an ongoing Success Story-A Report on Fair Trade in 33 consumer countries. Brussel. Dutch Association

- of Worldshops. Netherlands(http://www.wfto.com/index.php?option=com_docman&task=cat_view&gid=94&Itemid=109).
- Levi, M. and Lindon, A. 2003. "Fair Trade: A Cup at a Time?" *Politics and Society*. 31(3).
- Litvinoff, M. and Madeley, J. 2007. *50 Reasons to Buy Fair Trade*. England: Pluto Press.
- Moore, G. 2004. "The Fair Trade Movement: Parameters. Issues and Future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Ethics*. 53.
- Murray, D. L. and Raynolds, L. T. 2007. *Globalization and its Antinomies: Negotiating a Fair Trade Movement*. Raynods, L. T., Murray, D. L., and Wilkinson, J.(eds). *Fair Trade: The Challenges of transforming globalization*. Lodon and New York: Routledge.
- Raynods, L. T., Murray, D. L. and Wilkinson, J.(eds). *Fair Trade: The Challenges of transforming global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tiglitz, J. E. and Charton, A. 2005. *Fair Trade for All*. Oxford University Press.
- Suravonic, S. M. 2001.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Policy*.
- _____. 1997. "Trade Theories and Realities: Why Economist Should Study Fairness." *Challenge*.
- Trentmann, F. 2007. "Before "fair trade": Empire. Free trade. and the Moral economies of Food in the Modern World."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5.
- Tucker, R. R. 2008. "Fair Trade: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Rethinking mission*.